강민창의 자기소개서

1.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를 다니고 있고 이제는 2022년이 되어 21살이 되며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는 강민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컴퓨터를 좋아하여 이에 푹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 제가 개발자를 꿈꾸게 된과정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 이전에는 컴퓨터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단지 대입을 위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원했던 학교를 오게 되었고, 학과 특성상 전액 장학금도 주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 교내 컴퓨터 관련 교양수업에서 파이썬을 배우게 됐고, 배우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흥미를 느껴 학기가 끝난 후 방학동안 백준이라는 코딩 문제풀이 사이트에서 파이썬 관련 문제들을 하루종일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웹 프로그래밍이 컴퓨터 관련 분야중 가장 접근하기 쉽다는 말이 있고, 내가 직접 웹사이트를 만들고 구조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웹 프로그래밍의 기초라 할 수 있는 html. css, js 관련 강의를 방학동안 들어서 카카오톡을 웹으로 클론코딩해보고, 웹게임들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기 중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동아리를 들어가 자바를 배웠고, C#과 유니티를 이용해 팀 프로젝트로 게임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에 점점 흥미를 느끼며 개발자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발자라는 꿈을 가져나가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작은 불씨같이 생긴 흥미가 현재로써는 너무 커져버려 소화기로도 잠재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정도로 제가 열정을 가져본 것은 없기에 저를 컴퓨터에 푹 빠지게 된 사람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2. 당신은 왜 스타트업을 하십니까?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생긴 것은 대학교에서 들은 교양수업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선 스타트업을 차려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이 그분들의 강연을 듣고 후에 질문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교양수업이 있는데, 이수업에선 카카오처럼 아주 성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스타트업을 창설하신 분부터, 많이 유명하진 않아도 자신의 영역에서 잘 버티고 성장하는 스타트업을 창설하신 분까지 초청을 해주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원하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많은 돈을 벌어자신이 원하는 꿈같은 목표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기에 스타트업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3. 당신의 스타트업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화목한 모습입니다. 배달의 민족에서는 질문시간을 가져 사소한 것부터, 꽤나 무거운 질문까지 하나하나 답변해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장이 아니여도 회사가 어느것을 만들면 좋을지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을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아 하나의 아이디어로 바뀔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직원들로부터 양질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회사가되었으면 합니다.

4. 당신의 스타트업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다른 회사에 뒤처지지 않고 현재에 맞게, 오히려 트렌디하게 방향을 맞춰야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행하는 마케팅 수단이 바뀐다면 그것을 맞춰나가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유행이 어느쪽으로 바뀔지를 예상하고 그것을 연구해 빠른 대처를 해낼 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유행하는 기술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생각해보고, 현재의 사업을 어떻게 연계하고 맞출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유연한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5. 당신의 스타트업에는 누가 있어야 하나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란 한 번에 딱 생각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입밖으로 튀어나온 주제가 많은 생각과 개선 으로 빚어져 아이디어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함 없이 뱉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 견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아이디어로 빚기 위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6.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떻게 끝나나요?

스쿼드는 비록 10주라는 짧은 시간에 끝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팀원을 만나 자신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이를 상품화까지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7. 당신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꽤나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동아리를 진행하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뤄지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알아가고 싶고, 이런 프로젝트 관련된 경험이 부족한 편이기 때 문에 경험 또한 쌓고 싶습니다.

8. 우리는 왜 당신이 필요한가요?

저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배울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바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배워올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증명해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